

[목회자 모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요6장)

2020. 2. 14. 이현래 목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1:14)라고 하였다.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지금 저주받은 육체가 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창세기 6장에 가면 네피림이 된다. 천사들과 결합해서 거인, 장부, 위대한 사람, 용사,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를 보고 네피림이라고 하였다. 이 네피림을 보고 하나님은 지면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하였다.

사람은 무엇과 결합해서 무엇이 되는 존재다. 사탄이 준 말을 받아서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지금 인간은 멀쩡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망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못 생겼다는 말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용도에서 빛나가 버렸다는 말이다. 그러면 쓸모가 없다.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멸망이라고 한다. 용도에서 벗어나 버렸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될 것이 있는가? 그런데 먹고 난 후에 역사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되었다. 몇 백 살을 살았는데도 허무한 인생이 되었다. 더 나아가 그것이 천사와 결합해서 땅을 파괴하게 하는 그런 육체가 된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감사한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파괴해진다.

사람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다스리기 위해서 지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경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대로 땅을 파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절망적인 인간이다. 우리는 다 제대로 밥을 먹고 사니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망이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해 놓았는데, 그 군대가 전부 적이 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군대는 군대인데 쓸모없는 군대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목적에는 쓸모가 없는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인간대로 다 잘 살고 있다. 조금만 더 고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모든 선생들은 나와서 사람을 조금만

고치려고 한 것이다. 조금 더 개선만 하면 된다. 악만 없애면 된다는 것이 서구 사람들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원론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선과 악의 대결이다. 서양의 정신은 이원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서로 대결이다. 어느 하나가 끝나야 된다. 진리는 반드시 있다. 악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기독교도 그 사상 속에 들어가서 지금 기독교 신학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없다. 죽느냐 사느냐 둘 중의 하나다. 이것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서구 사상이다. 또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기도 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옳은데 평화가 없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을 보면 좀 특이하다. 음양이론은 그 사람들 철학의 중심이다. 음과 양이 있는데, 대립적 존재가 아니고 조화를 이루는 존재로 본다. 서양에서는 선과 악의 대립인데, 동양에서는 선과 악이 아니라 음과 양의 조화를 말한다.

증산도에 사람이 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화, 조화의 세계, 그것을 바라보고 모두 모인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천부경이다. 천부경의 첫 마디가 ‘시천주造化정(侍天主造化定)’이다. 자기들의 신인 천주로부터 시작된 조화의 세계를 주장한다. 대결의 세계가 아니고 조화의 세계이다. ‘영세불망만사지(永世不忘萬事知)’라고 해서 조화만이 영생이라고 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다. 악과 싸워라.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가 되고 말았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의 입장에서선 선이 악을 용납할 수가 없다. 악을 용납하면 선이 안 되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음양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38선이라는 일직선을 그어 놓았다. 그런데 6.25가 일어나서 태극형상이 되어 버렸다. 태극기와 같이 되어 버렸다. 휴전선을 자세히 보라. 일직선이었던 것이 싹 구부러져서 태극기처럼 되어버렸다. 옛날에는 그것을 볼 때, 이것은 우리나라의 운명인가 보다. 태극기와 우리나라가 어찌면 저렇게 똑같은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라가 통일이 되려면 태극기부터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양이라는 것은 서로 도와가면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 음만 있어도 안 되고 양만 있어도 안 된다. 서로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없으면 음도 안 되고 양도 안 된다.

인체를 동양 의학에서는 음양의 조화로 생각한다. 그래서 음양의 균형이 잘 맞으면 건강해

지는데, 음양의 균형이 깨어지면 그것은 불 건강이다. 그래서 한의학의 원리는 음양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다. 서양 의학처럼 무슨 균을 잡아 죽인다는 개념이 아니고, 음과 양의 조화를 제대로 맞추는 것이다.

쌍화탕이라는 약이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한다. 쌍화라는 뜻이 음과 양을 서로 조화시킨다는 뜻이다. 이 처방을 보고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이것은 귀신이 있는 처방이라고 하였다. 쌍화탕 처방이라는 것은 유명한 처방이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피로가 회복되는 것이다. 왜 피로가 회복되는가? 틀어졌던 음양이 조정이 되기 때문이다.

동양 사상은 조화의 세계다. 서양 사상은 대결의 세계다. 많이 다르다. 그런데 중동 세계는 유일신 세계다. 참 이상하다. 지역에 따라서 묘하게 사상이 분포되어 있다. 중동의 종교는 다 유일신교다. 이원론적이 아니다. 유대교는 이원론이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원론이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조용하지 않다. 좌우간 전쟁을 해서 이겨야 거기서 살아남는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많이 죽었다. 개신교는 그렇지 않았지만 천주교에서는 희생자가 굉장히 많았다. 희생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위에 세워진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피를 많이 흘린 만큼 교회가 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다. 성경에 보면 그런 근거가 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마10:34)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이 세계를 대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상생하려면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선악 둘을 두고서는 상생이 안 된다. 아이들이 둘 싸우면 자기들끼리는 해결이 안 된다. 부모가 있어야 해결이 된다. 부모가 있으면 두 사람을 화해시켜서 조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부모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남자들이 키우면 형제간은 매번 싸운다. 싸우고 친하고 싸우고 친하고 한다. 싸우는 것이 부모가 있으면 형이 동생을 못 때린다. 그래서 동생들이 때를 쓰고 형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없으면 형이 동생들을 확 휘어잡는다. 한 대 때리고 휘어잡으면 꼼짝 못한다. 그래서 형, 형 하면서 따라 다닌다. 부모가 있어야 둘이 조화가 된다.

다 큰 어른들도 형제간에 부모가 있을 때 화해가 된다. 그런데 결혼하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형제들이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싸운다. 제삿날 모이면 조용하게 넘어가는 집안이 별로 없다. 술 한 잔 먹고 나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터져 나오면 마지막에는 싸우고 나간다. 부모가 없어서 그렇게 된다. 선과 악이 없을 수는 없는데, 부모가 있으

면 조화가 될 수 있고, 부모가 없으면 조화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꼭 그렇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태극기가 참 좋은 국기가 되겠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것은 영원히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다. 네 귀통이에 사괘가 있다. 그것은 사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사강에 둘러싸여 있다. 사강이 지켜준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넘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원래는 팔괘인데 사괘로 줄였다. 자세히 태극기를 보면 우리나라 운명과 똑같다. 어찌면 위는 빨간 색이고, 아래는 파란색인지 모르겠다. 이상하다. 6.25 전에는 개성이 남한이었다. 그런데 6.25가 나서 그것이 북한이 되어 버렸다. 왜냐하면 태극기를 그리려니까 그래야 했다. 개성이 남한에 있으면 태극기가 안 된다.

오늘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좌표가 그냥 대결만 가지고서는 안 되게 되었다.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세계를 끌고 나갈 그런 종교가 될 수 없다.

창세기 6장에서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했으니까 저주받은 육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1:14)라고 했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 저주받은 육체가 하나님 말씀의 집이 되었다.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예레미야 31장이 성취되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인류의 소망이다. 이것이 없으면 인류는 저주받은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려 해도 되지 않는다. 선약과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리 섬기려 해도 그것은 안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예레미야 31장이 성취된 것이다. 신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이다.

2장에 가면 잔치집이 나온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인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면서 포도주가 풍성하게 되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잔치집의 포도주다. 아무리 잔치를 준비해놓았지만 포도주가 없으니까 재미가 있는가? 인생이 똑 같다. 사람들이 조건은 다 갖추고 있다.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다 만들어 주었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야 재미가 있는데 술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

신랑이 없으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아도 잔치집은 허망한 것이다. 잔치집에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 잔치집에 신랑은 바로 포도주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집을 풍성하게 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는 잔치집의 포도주라는 말이다. 우리 인생의 잔치집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잔치집이 된다는 말이다.

3장에 가면 거듭나게 하는, 다시 나게 하는, 위로부터 나게 하는 늦 뱀이 나온다. 3장의 주제는 늦 뱀이다. 어떻게 다시 나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거듭난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거듭나는지 모른다.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행위가 바뀌지면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거듭난다는 것과는 다른 말이다. 장대에 달린 늦 뱀이다. 늦 뱀을 쳐다보아야 아담이 먹었던 독이 빠져 나가고, 민수기 21장에 나왔던 독이 빠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신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 말이다.

이것은 십자가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를 받아먹어야 내가 독이 빠진다. 거기서 사랑이나 봉사나 희생이나 이런 좋은 것, 선악과 입장에서 봐도 좋은 것을 먹고서는 독이 안 빠져 나간다.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해도 독은 안 빠져 나간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한다고 해도 독은 안 빠져 나간다.

그런데 그 늦 뱀을 통해서 독이 빠져나갔다. 늦 뱀은 독이 없기 때문이다. 독이 없는 뱀을 먹고 독이 빠져나갔다는 말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그 독을 그냥 가지고서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것이다. 무엇을 해도 독이 있는 사람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에 워치만니를 만났을 때,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봤다. 다른 것들은 다 기억도 안 되고, 또 기억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영적인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책을 읽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고 혼으로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영을 분별하려고 애를 쓴다. 그것이 필요가 없다. 다른 말이 아니고 그 말이다. 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영이 아니고 혼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혼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다, 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있는 큰 독소라는 것이다. 책을 쓴 사람의 의도는 그것을 제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그 책을 썼다. 그것만 알면 된다. 3권이나 되는 책이다. 그 안에 보면 그분의 세세한 영적 체험들이 들어 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헛갈려 버린다. 이것이 영인가? 저것이 영인가? 이렇게 헛갈려 버린다.

내가 대구에 왔을 때 학생들에게 그 책을 읽어보라고 했더니 읽고서는 질문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헛갈리면 차라리 보지마라고 했다. 헛갈릴 필요가 전혀 없다. 딱 한가지다. 영이냐? 혼이냐? 그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 영으로 한 것인가? 혼으로 한 것인가? 이 문제다. C.C.C.에 들어가서 뭔가 많이 했다. 전도하고 하는 일이 다 영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전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이 다

영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것이 다 혼으로 한 일이라는 말이다.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한 일이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한 것은 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혼으로 한 것이다. 이것이 혼란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 안에 혼란이 생긴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일은 다 성령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큰 부흥을 했으면 성령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병자를 고쳤거나 전도를 얼마 했다고 하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발견하였다. 그것이 아니로구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저절로 영의 일을 한다. 그런데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지금까지 해 온 일이 성령의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내 생각일 수도 있구나. 우리가 흔히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한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성령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가?

정*영씨가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였다. 그것도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하겠는가? 만일 정*영씨가 **중공업을 세울 때 기독교인이란 분명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공했으면 누구든지 저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주 속기 쉬운 자리다.

우리가 한 일이 내 뜻대로 한 것인가? 내 생각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성령으로 한 것인가? 이것을 구별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독이 없는 놋 뱀을 먹지 않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다. 병 주고 약주는 식이 되는 것이다. 거듭남의 문제가 3장의 문제다.

4장은 사마리아 여자,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를 묻는 여자를 만나게 된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신령)과 진리(진정)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요4:21,23)는 간단한 말을 하셨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만족하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다.

그러면 무엇을 어디서 한다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겠는가? 하나님의 만족은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만족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마17:5) 이것은 예배가 잘 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좋은 예배를 받았다는 뜻이다.

이삭이 축복을 하기 전에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려는데 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말한다. 그래서 에서는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하러 나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가로채서 축복을 받았다. 왜 축복을 하는데 별미를 가져오라고 하겠는가? 그것은 예배이기 때문이다. 나를 네가 만족하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뜻이다. 어미 개는 잘 먹으면 좋은 젖이 나오는데, 잘 못 먹으면 젖이 안 나온다.

아프리카 문제를 광고하는 것을 보니까 못 먹으니까 엄마가 젖이 안 나온다. 아이가 못 먹어서 죽는다. 그런 아이들이 1초에 한 명씩 죽는다고 나온다. ‘많은 헌금을 해주세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해주세요.’ 이 광고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다. 어머니가 잘 먹어야 아기가 젖을 얻어먹지 어머니가 잘 못 먹으면 젖이 나올 수가 없다.

개를 키워보니까 자기가 배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새끼들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자기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준다. 그러면 참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처음에는 참 개 같은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지혜롭구나. 저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먹어야 새끼들을 먹이지 않겠는가?

사역하는 사람들은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사역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불평이 쌓여 있는 사람이면 무엇을 말해도 불평을 내놓는 것이다. 겉으로 말은 좋은 말을 하는데 그 안에 독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독에 취하게 된다. 사역자의 어떠함이 바로 그 교인들의 어떠함이 되는 것이다.

엄마의 젖이 아기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엄마의 젖이 좋으면 아기들은 잘 자란다. 엄마의 젖이 나쁘면 아기들은 잘 자라지 못한다. 엄마가 찬 것을 먹으면 아기는 젖을 먹고 설사를 한다. 사모님들은 경험하셨을 것이다. 아이 젖을 먹일 때는 얼음 같은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얼음 같은 것을 먹으면 아이는 설사를 한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음을 먹으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설사를 한다. 내가 만족하지 않고 뭔가 불만이 차 있는 사람이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이니까 그 안에 독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다. 분노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내가 낳은 것은 독이 있다.

복어를 아실 것이다. 복어 중에서 독이 가장 강하게 있는 곳이 알이다.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 속에는 다 독이 들어 있다. 무슨 알이든지 다 들어 있다. 계란을 먹는데 계란 속에도 독이 있기는 있지만 조금 적게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다. 계란 탕에 은수저를 넣고 조금 있으면 새카맣게 된다. 독이 있기 때문이다.

돌잔치 때 왜 아이에게 은수저를 선물하는가? 그것은 독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다. 옛날에 임금님은 은수저를 사용하였다. 만일 수라상에 독이 들어오면 단 번에 발견이 되는 것이다. 계란에도 독이 들어 있다. 모든 알에는 다 독이 들어 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내가 독이 있으면 내게 있는 독이 알로 나간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알이다. 우리가 낳는 알이다. 내가 독이 있으면 알도 독이 있다. 영양가와 함께 독이 들어간다. 그 알을 먹으면 죽든지 아니면 병이 들든지 나와 같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행할 때는 말을 안 해야 한다. 내가 불행해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어 버린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내 모습은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한다. 나도 그러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복어 같으면 복어 알을 낳는 것이다. 기도한다고 복어가 계란을 낳겠는가? 불가능하다.

3장의 주제는 낫 뱀이다. 독이 없는 뱀이다. 독이 없는 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이다. 4장에서 예배는 누가 하는가? 아들이 예배가 된다. 아들 자체가 그냥 예배다.

엄마들은 아기를 키우는 것이 매우 수고롭다. 그렇지만 아기를 보면 예쁘니까 수고로움이 다 없어진다. 수고했다는 생각이 안 든다. 남의 아기를 키워주겠는가? 못 키워준다. 내가 수고한다는 의식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친엄마는 내가 수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다. 아기 키우는 여자에게 수고한다는 것이 인사가 되겠는가? '참 즐거우시겠습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래야지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 여자들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가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놓았다. 젖을 주면서 짜증이 나면 안 된다. 짜증이 나다가도 젖을 줄 때는 행복하도록 생리적으로 만들어놓았다. 하나님은 참 신기한 하나님이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가 제일 즐겁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화가 나서 전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면 전하는 것 자체가 즐겁

다. 즐거우니까 한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하고 괴로우면 안 된다. 나는 평생을 설교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설교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살면 그보다 더 좋은 삶은 없을 것 같다. 하나님 말씀을 하면 내가 즐겁다.

아들이 예배다. 다른 예배는 없다.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은 예배를 안 본다고 한다. 예배를 안 본다는 사람이 많았다. 우리 장모님도 이곳에 사셨는데, 사위가 목사니까 다른 교회 가기가 그렇다. 그런데 와 보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 1부 예배를 보고 오셨다. 예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교회에 가서 1부 예배를 보고 2부 예배로 우리 교회를 오셨다. 얼마 동안 그러시다가 어느 날부터는 안 그러셨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간증하면 그것이 예배다. ‘나는 당신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다.

아버지 앞에 가서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최고의 효도이다. 최고의 불효는 ‘아버지, 나를 왜 낳았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내가 불행합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는가. 욕이 최고로 불행할 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내가 낳은 날이 없었으면, 내가 나지 않았으면, 태에 있을 때 죽었으면, 이렇게 한탄한다. 최고의 효도는 다른 것이 없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부모에게 감사만 하면 그것이 효도이다. 아무리 돈을 갖다드려도 감사가 없으면 효도가 안 된다.

아들이 예배다. 아들이 예배가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때, 나는 예배하고 있구나. 그때 자기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와서 행복한 간증을 하는데, 탄전을 피우고 있으면 그것은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박수라도 쳐주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예배다.

5장에 가면 안식일이 나왔다. 하나님의 안식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는 것이 안식이다. 여호와와 안식일이다.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다. 심히 보기 좋다. 그래서 안식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완성되었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완성되었는가? 자기의 형상으로서의 자기 아들이다. 자기 형상이 이루어지니까 심히 만족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생물들을 다 만들었는데, 만들어도 뭔가 심히 만족이 안 된다. 심히 만족이 되지 않고 부족하여 또 만들고 또 만든다.

그림을 그려놓고 나니까 뭔가 부족해서 또 색칠해보고 또 그려보고 해서 여섯 날까지 온 것이다. 대번에 만족했으면 첫째 날에 끝난다.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봐라.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 만들어놓고 보니 뭔가 부족하면 끝을 못 낸다. 또 해보니까 뭔가 또 부족하다. 그러면 또 끝을 못 낸다. 다 이루었다가 안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에 다 됐다고 하는 것이 안식이다. 다 이루어졌다. 내가 바라던 그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쉬셨다. 그것이 안식이다. 여호와와의 안식이다.

그런데 누구를 보고 안식하시겠는가? 자기 아들이다. 자기를 형상화 할 수 있는 인간이다.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을 볼 때이다. 자기는 그것을 위해 지었으니까 영이신 그분은 몸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심히 만족했다는 그 말이다.

무엇이 완전인지 기준하기 어렵다. 서양식으로 하면 완전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인생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이다. 서양식의 완전은 없다. 서구식 완전은 없다. 영원히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에 만족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나왔다는 말이다.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계속 해봐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과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는 표준이나 목표가 생기지 않으면 선을 보면 볼수록 계속 만족이 안 된다. 어렸을 때 내 친구가 결혼을 하려고 선을 열세 번을 봤다. 사실은 자기는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를 모르는 것이다. 선을 보고 나면 다른 사람은 어떤가? 또 딴 사람은 어떤가? 이렇게 되니까 열세 번을 선을 봤다. 열세 번을 해서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죽어버렸다. 밤에 잠자다 죽었다고 한다. 왜 죽었는지 모른다.

나는 어렸을 때, 그것을 보면서 골라봐야 별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저렇게 골라봐야 안 되는구나. 나중에 생각되는 것이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골라도 골라지지 않겠구나. 고를 수가 있겠는가? 백화점에 갈 때 내가 무엇을 사겠다고 결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보고 이렇게 해서는 못 산다. 둘러보다가 오지 못 산다.

나도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무엇을 얼른 결정을 못한다. 그런데 결혼할 때는 아주 쉽게 결정했다. 왜냐하면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니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배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것밖에 말할 것이 없다. 나는 이렇게 살 것인데 괜찮냐고 물었다. 괜찮다고 하면 내가 거절할 수가 없다. 왜? 내가 말을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자가 묻기를 ‘당신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하고 물을 때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선을 보나마나 안 된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만나면 간단하다. 대답만 확실히 하면 된다. 왜? 내가 제시를 했다.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안 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다. 좋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싫어도 거절할 수가 없다. 내가 이미 제안을 해 놓았는데 아니라고 하겠는가? 그러면 미친놈이다.

아무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만나보고 좋으면 하겠다고 하는데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알겠는가? 만나보면 얼굴밖에 더 보겠는가? 사람 속을 알 수 있는가? 모른다. 요즘 서양에서는 1년씩 살아보고 결혼한다고 하는데, 일년을 살아본다고 알겠는가.

하나님의 만족은 만족대로 따로 있다. 하나님의 만족은 정해졌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아들이어야 된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만족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만족이 되면 다 끝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만족이 되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내게 따로 완성이라는 것이 없다. 그분에게 필요하면 내가 완성된 것이고, 그분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된 것이다. 아무리 나대로 좋다고 해봐도 소용이 없다.

아들이 안식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주인이라는 말은 창시자라는 말도 된다. 인자는 안식일의 창시자다. 하나님이 안식을 왜 했는가? 그 인자 때문에 안식했다는 말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창시자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식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절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안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의 필요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식 못할 수 있다. 아무리 편히 주무시고 싶어도 주무실 수 없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왜 그렇겠는가?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이 안 되니까 그렇다. 자기 대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있겠는가?

잠 안자는 것은 못 견디는 일이다. 제일 어려운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다. 요즘 검찰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을 보면 열 몇 시간을 취조를 받았다고 한다. 열 몇 시간을 아무 말을 안 해도 앉혀놓는 것 자체가 고문이다. 잠을 안 재우고 얼굴에 강한 전기를 비춰서 눈을 못 감게 만든다.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얼이 빠져겠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말을 아무리 해도 열 몇 시간을 잠을 안 재우고 하면 사람이 견디겠는가?

취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한다. 한쪽에는 먹을 것을 실컷 주고, 한쪽에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룹을 나누어서 실험을 했다. 먹을 것을 실컷 주는 쪽은 먹기는 실컷 먹는데 잠은 절대로 못하게 한다. 그런데 한쪽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는데 잠은 잔다. 어느 쪽이 오래 살겠는가? 잠자는 놈이 오래 산다고 한다.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 최고의 고문이다.

요즘 고문법이 폐지되고 고문을 못하게 하니까 잠을 안 재운다. 고문이 다른 것이 고문이 아니다. 열 몇 시간 취조를 받았다는 것은 고문을 받았다는 뜻이다. 무슨 취조를 열 몇 시간을 하겠는가? 맨날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자기들은 교대해서 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또 그 말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또 그 말을 하고,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고문이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은 간단하다. 내가 하나님을 안식케 할 수 있는 주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식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로 인해서 안식한다.

교회에서 목회하시면 성도들이 여러분을 안식케 할 수 있다. 말씀을 듣고 순종 잘하면 편해진다. 그것이 안식이다. 그런데 말썽 있고 문제가 생기면 안식이 안 된다. 그것이 목회자들의 피를 말리는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안식이 되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왜 받는가? 말썽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내가 먼저 안식을 주어야만 된다. 내가 먼저 안식을 주어야 그쪽도 내게 안식을 준다. 성경말씀이 하신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복 주어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너희도 안식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안식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먼저 안식해야 남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

그 다음 오늘 6장이다. 6장은 떡이다. 먹는 떡이다. 베세다 광야에서 떡을 먹었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 이야기의 주제이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요6:48)는 것이다. 떡을 먹고 나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무엇을 주겠느냐?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이다. 이것을 가지고 메시아야 되겠느냐? 좀 더 확실한 것 좀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준 것은 40년을 먹었든지 400년을 먹었든지 먹고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주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떡이 그런 떡이다 있느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요6:51)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비약이다. 예수님 말씀은 다 이렇다. 시작은 땅으로 하는데 나중에 가면 다 하늘로 간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 자기 살을 내놓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니 이것을 먹으면 영생한다(요6:54,55)고 나가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별난 사람이구나. 자기 살을 어떻게 먹겠는가? 그래서 모두 슬슬 다 피해 가버렸다.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요6:67)고 하니 그래도 따라온 것이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요6:68)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버렸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고, 추상적인 소리고, 허황한 소리라고 하면서 다 가버렸고 제자들만 남았다.

그런데 제자들도 어떻게 선생님 살을 먹는가? 살을 어떻게 먹는다는 말인가? 의문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물었다.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요6:61)고 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 말을 선생님 앞이니 차마 그 말을 못했지만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떡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요6:63)고 말씀하셨다.

“영이요 생명이라.”(요6:63) 이럴 경우 영이라는 말은 귀신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영은 기름이다. 참깨가 있는데 이것을 눌러 비틀면 기름이 나온다. 비유를 한다면 그 기름을 영이라고 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나를 비틀어서 짜낸 말이다. 내 속에 깊이 있는 그 무엇을 짜서 내놓은 것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내 생명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말이다.

겻세마네는 기름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거기서 예수님은 피땀을 흘려서 기도를 하셨다. 기름을 짰 것이다. 피땀을 흘렸다는 말은 알고 보면 기름을 짰다는 말이다. 겻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 기름틀에 가서 기름을 짰다.

예수라는 사람을 기름을 짜면 뭐가 나오겠는가? 예수 영이 나온다는 말인데, 예수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예수를 비틀어 짜면 뭐가 나오는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기름틀에서 비틀어 짰 것과 똑같다. 모두 뭐가 나오는가 보자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이다. 속된말로 환장할 일이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냐는 이것이다.

참깨에게 그 말을 하면 참 좋다. 네가 참깨라면 기름 좀 내놓으라고 했으면 비틀어 짜면 금방 기름이 나온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기름 좀 내놓으라는 말이

다. 진짜를 내놓아봐라. 네 정체가 뭐냐? 진짜 네가 뭐냐? 그러려면 내려와 봐야 우리가 알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런 증거가 있어야 너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겠느냐? 이런 말이다.

이것은 비틀어 짠 것이다. 기름이 나올 때까지 비틀어 짠 것이다. 왜 깨를 볶는가? 고소하게 하느라 볶지만 볶아야 기름이 많이 나온다. 생 깨를 짜면 기름이 많이 안 나온다. 기름 많이 짜려고 볶는 것이다. 들기름을 먹으려고 짜는데 다 볶아서 짜는데 산패가 생긴다. 모든 기름은 170도가 넘어가면 거기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한다. 먹으려면 생 들기름을 먹어야 한다. 생것을 짜 달라고 하면 안 짜준다. 생으로 짜면 기름이 얼마 안 나오고 짜기 어렵다. 비틀어도 기름이 잘 안 나온다.

생 사람을 놓고 기름을 짜니 나오겠는가? 십자가에 놓고 짜야 짜진다. 우리 인간의 기름도 십자가에 가야 짜진다. 깊은 고난 중에 그 사람의 기름이 나온다. 평범한데서 기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서 기름이 나온다. 거기서 진실이 나온다. 사람의 진실이 나온다. 진실, 진실 하는데, 그 진실은 기름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요6:63) 이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산다(요6:54)는 이 말은 이것이 내가 기름 짜는 말이다. 오죽하면 내가 이 말을 하겠느냐? 이런 말이다. 나를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내가 내 살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기 때문에 기름틀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요6:63)**

어디 가서 사망에 깊이 빠진 사람과 상담을 해보면 정말 말하기 어려운 데가 있다. 도저히 이 사람을 위로하기 어려운 자리가 있다. 그런 자리에 가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내가 기름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내 기름을 다 짜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슬쩍 심방하고 오려면 별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절망가운데서 면담을 신청하여 위로하러 가는데 그냥 생공으로 가서 되는가? 안 된다. 기름을 짜서 주어야 그 사람이 살까 말까 한다.

만나보면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생각해봐도 꼭 그럴 것 같고,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나도 그러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공감이다. 공감만 가지고는 살리지 못한다. 거기에 기름을 주어야 하는데, 내게서 기름이 짜져야 된다. 자신이 없으면 못 간다.

나도 곤란한 경우를 당해 보았다. 나 같으면 가지 않겠는데, 어른이 와서 가자고 하니깐 안 간다고 할 수 없다. 목사에게 지금 이리이러한 일이 생겨서 가 봐달라는 것이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던지 뭐가 있던지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죽을 사람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참 고민이 되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내내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말이 없다. 마지막에는 할 수 없다. 기왕 이렇게 내친김에 왔으니깐 가서 있어보자 하고 갔다. 아무 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갔다.

다행히 그날 내 말을 듣고 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그 말이 나왔다. 참 어렵다.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그 때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가나마나 마찬가지로인데 빈 소리하고 온 것이 된다. 그 심각한 사람에게 빈 소리하다 오면 되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요6:63)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누구이기에 자기 살을 나눠 주겠느냐? 저것이 사이비구나. 요즘 같으면 저거 사이비라고 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이단으로 찍히기 딱 맞는 말이다.

제자들도 당황했다. 어떻게 선생님을 먹는다는 말이냐? 좀 이상하다. 혹시 잘못 따라온 것은 아닌가? 별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고 대답이 확실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요6:63)고 하니깐 이것도 대답이 아니고, 저것도 대답이 아니고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제자들도 참 답답했을 것이다. 그쯤 됐으면 이제 그만 둘 수도 없고, 따라 갈 수도 없다.

“영이요 생명이라.”(요6:63) 그분을 어디서 우리가 먹어지겠는가? 먹을 데가 없다. 아무데도 먹을 데가 없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 분을 내가 어떻게 먹겠는가? 그분이 어떻게 내 양식이 되겠는가? 내가 그것이 먹어지겠는가? 먹으면 소화가 되겠는가? 먹지도 못하지만 먹어봤자 소화도 안 되고, 만일 먹으면 내가 죽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저서 내려오지 못했으니깐 그분을 먹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먹을 방법이 없다. 이것이 정말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쉬운 일인데 이것이 이상하게 들린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죽을 썬어놓아도 안 되고 미음을 썬어놓아도 안 된다. 생각해봐라. 내가 예수를 어디 가서 먹겠는가? 내 몸에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먹어서 내가 소화를 시키겠는가? 그 문제가 믿는다고 되겠는가?

6장 이전에는 먹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왕의 신하의 요청을 받았을 때도 저만한 믿음을 못 봤다고 했다. 보아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 말을 믿고 갔다는 것이다. 그 정도는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요6:54)고 했을 때는 그것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다른 생명을 만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CBS나 CTS 설교를 들어보면 다 주제가 믿음이다. 믿어야 된다. 사람이 믿을 것은 믿는다. 그런데 믿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못 믿을 것도 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정말 못 믿을 사람이다.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믿겠는가?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 준 자리가 십자가다. 우리가 먹어도 되겠구나. 먹을 수 있겠구나. 나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먹었다는 말이다. 저분도 나와 같구나. 이 말은 벌써 내게 들어왔다는 말이다. 그분이 나와 같구나. 내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저분도 틈이 있구나. 너무 완벽해서 내가 접근도 할 수 없는 분인데, 저분 속에 저런 것이 있구나. 내가 접촉할 수 있는 저런 자리가 있구나. 그래야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못 먹는다.

어떻게 먹겠는가? 생각해봐라. 맑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분을 내가 무슨 수로 먹겠는가? 분명히 물을 떠놓고 포도주라고 먹으라고 하는데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먹겠는가? 흥내를 냈다가는 미친놈 소리 듣는다. 흥내도 못 낸다. 나는 아예 흥내 낼 용기도 없지만 흥내를 냈다가는 창피당할 일이다.

십자가에 오니까 저렇게 저런 자리도 있구나. 나를 부르는구나. 나도 저기 가면 되겠구나. 저것이 바로 내 운명이구나. 이미 소화되고 있다.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만큼 소화가 되었다는 뜻이다. 저런 면이 있구나. 내려오지 못한 면도 있구나.

저렇게 지금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아우성도 치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 못 내려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보란 듯이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너무 실망이 된다. 제자들도 너무 실망이 되었다. 저럴 줄은 몰랐다. 설마 저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나타난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것이 아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닌 나다. 나는 그 사람이 싫어서 동산을 나온 사람이다.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싫어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던 선악과를 먹고 쫓겨 난 사람이다.

왜 아담이 불순종을 했겠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불순종한 것이다. 왜 거역을 했겠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거역한 것이다. 우리가 그러지 않겠는가? 예수님도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눅22:42)라고 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아담도 그 기도를 하지 않았겠는가?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했을 것이다.

다 좋지만 동산에서 내가 이것밖에는 안될 것이 아닙니까? 좀 다른 것을 줄 수 없습니까? 누구는 그 말을 하지 않겠는가? 다 한다. 그런데 누가 와서 아니다. 그 말을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너 걱정할 것 없다고 하면 듣지 않겠는가? 이것을 먹으면 십자가에 매달아도 내려올 수 있다고 하면 그 말을 듣지 않겠는가? 어떻게 듣지 않겠는가?

아담이 경솔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신앙심이 없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다 있었다.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담이다. 그 안에는 순교자도 들어있고, 그 안에는 믿음 좋은 사람도 들어있고, 그 안에는 별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담이다. 다 해봐도 안 된다. 이 문제만은 벗어나고 싶어서 아담이 먹은 것이다. 우리가 괜히 아담에게 조상 탓하면 안 된다.

거기서 우리가 살 자리가 있는 것을, 거기가 내 살 자리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싫어했던 것이다. 사람은 어차피 한 가지 제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다. 흠은 반드시 자기가 좋던지 싫던지 꼭 심은 씨만 내야 한다는 제한을 가지고 있다.

여자는 자기가 싫던지 좋던지 자기가 받은 씨만 아기로 내놓아야 한다. 강간을 당했더라도 할 수 없다. 그 제한을 가진 것이 여자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우리가 그 제한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감수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을 어찌하겠는가? 그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피조물이구나. 그냥 창조나 이런 지식에 의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제한 속에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정말 받아들인 것이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시작이 그렇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시작 자체가 그곳으로 가는 길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길이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맨 처음에 안 것은 그것밖에 없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 위에 누가 있구나. 나보다 먼저 누가 있구나. 그랬는데 머리가 싹 정리가 되었다. 내가 그것을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그것이 정리가 되겠는가? 그런데 나는 그것이 단순한 것이었지만 그 단순한 것이 평생을 간다. 그것이 늘 자라나고 자라나고 한 것이지 다른 길로 간 것이 아니다.

창세기 1장1절이 평생을 가는 것이다. 성경 전체로 가는 것이다.

예수는 우리가 먹을 생명의 떡이다. 그 자리를 우리가 벗어났다. 그 자리를 우리가 뛰쳐나왔다. 한번 살아보겠다고 뛰쳐나갔다. 내 멋대로 해보겠다고 뛰쳐나갔다. 뛰쳐나오니까 가시밭길이고 길이 없다. 잘한다고 해놓은 것이 가인과 아벨이고, 잘한다고 해놓은 것이 네피림이고, 잘한다고 해놓은 것이 바벨탑이고, 빠른 길이다. 알고 보면 빠른 길이다. 평생을 그렇게 살고 보면 남은 것은 바벨론이고 바벨탑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할 자리이고, 그 한자리가 우리의 영광이 달려있는 그런 자리이다. 우리 영광은 거기 달려있다. 그 자리에 있다. 다른데 가서 찾아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없다.

오늘 6장의 주제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다. 우리의 양식된 그리스도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되는 이신 그리스도. 내 운명을 살리러 온 그리스도. 나를 묻게 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는 그리스도다. 그를 먹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 믿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다.

먹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안식이 되고 먹어야 그 다음부터 평안이 오지 믿는 자리는 평안이 없다. 언제 믿음이 깨질지 모른다.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은 잘 믿었는데, 내일은 잘 믿는다는 보장이 없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잘했다고 내일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불안하다. 그래서 안식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먹으면 안식이 된다. 이것이 연합이다. 연합의 비밀은 둘이면서도 하나다. 신기한 일이다. 예수와 나는 다르지만 하나다. 왜? 그 자리만 가면 하나가 된다. 먹으면 하나가 된다. 그렇다고 결코 혼돈되거나 혼합되지는 않는다. 칼케돈 원칙이라고 한다. 서로 독립하고 서로 분리되지만 절대로 둘이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하나가 되지만 결코 덩어리가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다.

감사합니다.